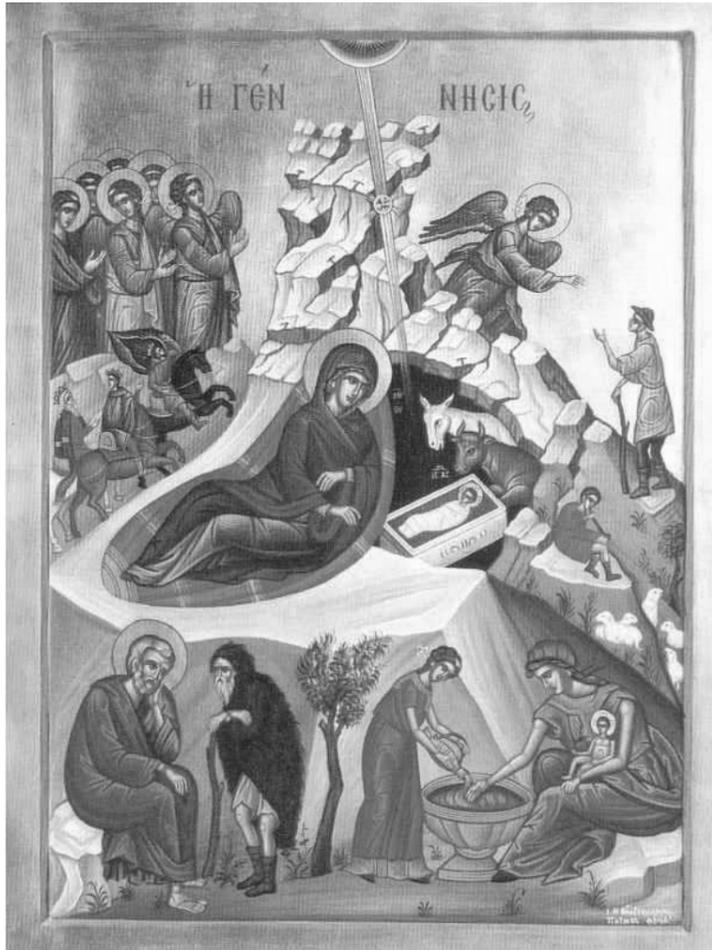




정교회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성탄 축일 전 주일
 아담에서 요셉에 이르기까지 의로운 선조들과 예언자들
 성 이그나티오스 안디오키아 주교순교자
 제 3조, 조과복음 6
 (조과에서 성탄 까따바시아)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에서
 •제 3조 부활찬양송 / 82, A 213
 •주일 입당송 / 14, A 42
 •성탄절 전 찬양송 / 208, B 245
 •성당 찬양송
 •성탄대림절 시기송 / 208, B 239
 •사도경 : 히브리 11:9~10, 32~40 / 208, 봉독서 640
 •복음경 : 마태오 1:1~25 / 209, B 246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2020년 성탄절 메시지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께서 지상에 내려오시고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요한 1:24) 성탄절을 하느님의 은총과 무한한 자비로 올해 다시 한번 맞게 되었습니다.
 인류를 절망으로 이끌었던 인간의 오만함 때문에 메시아께서는 지극히 겸손한 방법으로 이 세상에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굴, 말구유, 가난, 피난, 수난, 십자가에서의 모욕 등이 모든 것을 하느님이자 인간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다 견디고 참아내셨습니다. 인류 첫 조상의 타락으로 상처를 입게 된 인간은 오직

이렇게 지극히 겸손한 방법으로만 바로잡아지고 구원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낮추어 인간이 되는 것을 수락하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어울리지 않지만 전부 값싼 원소들을 갖추어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인간의 오만함을 짓밟기 위해서였습니다.»(요한 크리소스토모스, EΠ E 6:16)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겸손한 사람에게만 오셔서 «머무십니다.» 오직

(2 페이지에 계속)





☆ (첫 페이지에서 시작)

☆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만이 하느님 사랑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없이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는»(에페소 2:4) 당신의 부유함으로써가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당신의 «비우심»으로, 이해할 수 없는 당신의 가난하심으로, 우리를 풍요롭게 하십니다. «성육신 신비의 신학적 중요성에 대한 이해»라는 큰 선물을, 세속적 의미에서 부유하고 힘세고 영향력 있고 똑똑하다는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성령의 어부들»에게, 겸손하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에게 선사 하십니다. 이 헤아릴 수 없는 신비에 대해 요한 크리소스토모스 성인은 다음과 같은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비우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유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셨는데, 그리스도의 부를 통해서가 아니라 가난을 통해서 부유해지도록 하셨습니다. 만약 가난해서는 부유하게 될 수 없다고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주님의 경우를 생각해보십시오. 조금도 의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가난해지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은 부유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가난으로 부를 쌓은 매우 놀라운 경우입니다.»(EPIE 19:454)

☆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모습을 나타내신 그리스도시여, 당신께 무엇을 바치리이까?»(성탄절 만과 성가 중) 우리는, 우리가 가진 연약한 본성 중 그저 작은 일부분밖에는 당신께 바칠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당신은 다정한 아버지로서 «내 아들이,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다오.»(잠언 23:26)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나이다. 어떤 외형적인 것, 우리의 재산이나 학벌이나, 그밖에 다른 어떤 물건들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본질 그 자체를 원하시나이다. 당신은 우리 영육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욕망과 약점들로 가득하나, 당신은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성화시키고자 그 마음 자체를 원하시나이다. 그런데 우리는, 가늠할 수 없는 자애의 마음으로 당신이 내미시는 구원의 초대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 주여, 당신은 제 마음의 문 밖에 서서 마치 구걸하듯 문을 두드리고 계시나이다. 제가 그 문을 열면, 당신께서는 이미 약속하셨듯이 안으로 들어와 저와 함께 만찬을 나누실 것이나이다. 당신은 저에게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나이다. 제가 이 «찢어지고 터진 마음»에서 내어 바치는 것이기만 하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당신은 그것을 만찬으로 삼으실 것이나이다. 그리고 제가 당신께 «주여, 내 곁에 머물러 주소서»라고, 온마음을 다해 간절히 바라기만 한다면, 당신께서는 제 마음속에 영원토록 머무실 것이나이다.

☆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전세계적 전염병 속에서 보내고 있는 올해의 성탄절에는 모두 한번 자신을 반성하며 되돌아보아야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성탄절을, «자애로 창조하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성탄절 대만과 성가 중)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사건에 대해 깊이 이해하지 않고 인식 없이 보냈는지를 말입니다. 얼마나 많이, 죄라는 끔찍한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그와 싸우기 위해 해야할 노력을 하지 않았는지를 말입니다. 얼마나 많이, 회개하는 마음과 죄에 대해 가슴 아파하는 마음 없이 감사의 신비성사에 참여하였는지를 말입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의 이기심으로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주변인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파괴하였는지를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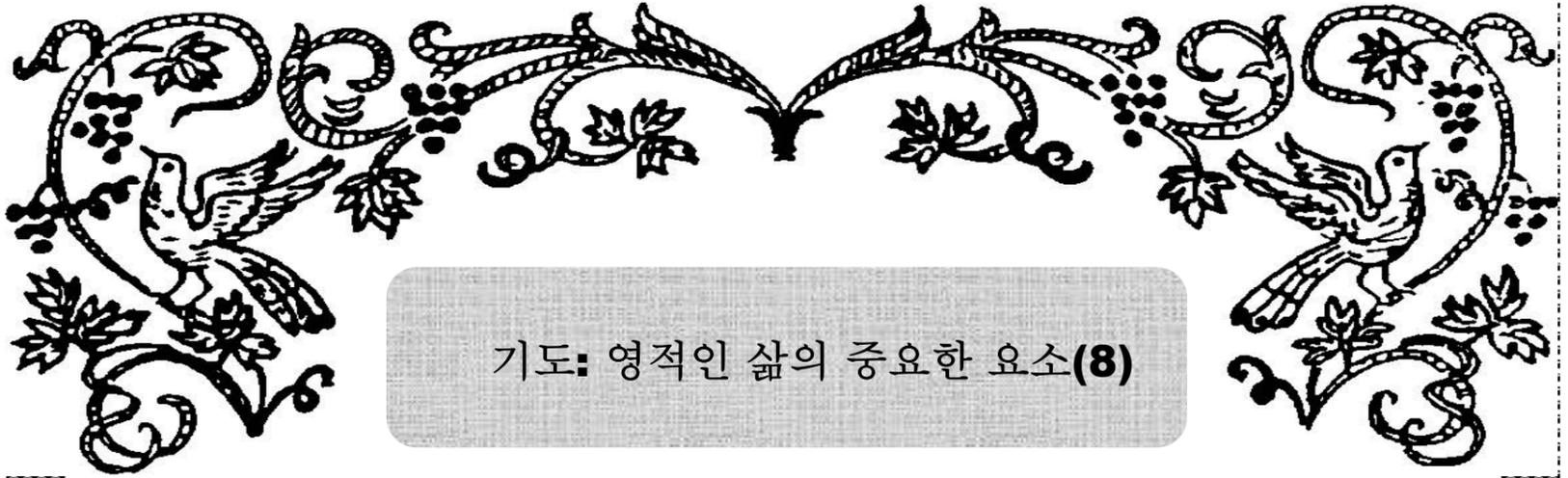
☆ 우리 모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느님 앞에서 진심을 다해 겸손해집시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머무시기를 간청합시다.

☆ 피시디아의 소티리오스 대주교님과 모든 성직자들, 모든 신자들, 세례를 받고 새로 정교인이 된 이들, 예비신자들, 주님 안에서의 모든 협력자들을 대표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건강하시며, 그리스도께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주시기를, 그리고 가족들과 친지들과 축복된 성탄절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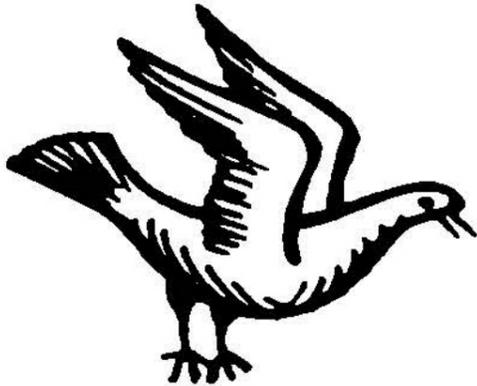
☆ 이 땅에 탄생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한국대주교





기도: 영적인 삶의 중요한 요소(8)



아토스의 꽃들(저자: +모세 수사)에서 발췌
(어떻게 기도할까요?)

아토스산의 어떤 영적인 원로는 젊은 수도사들에게 “당신의 생각, 가상의 것들과 이야기를 나누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다른 원로는 말했습니다. “제 방 위에는 새들이 많이 날아다닙니다만, 날지 못하게 방해는 안합니다.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지붕 위에 집을 짓도록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 끌리막스 성인(6-7세기)은 말합니다. “비록 당신의 정신이 계속해서 분산될지라도 그것을 되돌리려고 끊임없이 애써야만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가 흩어진 까닭에 책망받지 않을 것이며, 도리어 흩어진 정신을 다시 집중하려고 하지 않은 까닭에 책망받을 것입니다.”

첫째 원로가 말한 “생각과 가상의 것들”은 우리에게 많은 문제를 일으키며, 기도에 심각한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도를 방해하기 시작하면, 집중력은 쉽사리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특별히 이런 것들이 우리의 통제되지 않은 욕망과 맞아떨어지거나 또는 우리가 지닌 의지의 허약함을 보여준다면 그것들이 사라져버리길 우리가 원할 때에도 쉽게 떠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은 오래고 힘든 것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숨기거나 정당화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밖에도 우유부단함, 불안,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질병과 관련된 고통, 안 좋은 기질과 성격, 배고픔, 갈증, 졸음, 조급함과 초조함, 여러 가지 기억과 회상들, 피로와 권태로움, 과거의 짜증났던 일과 골칫거리들 등은 특히 초보자에게 문제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기도하려는 우리의 의지를 약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찬예배에서 들려오는 외침, 곧 “문과 문, 지혜로 주의를 기울입니다!”라는 소리를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정신과 마음의 문을 잘 지켜야 하며, 이로써 악을 만들어내는 이가 자유롭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타나시아

성탄절, 신년, 신현축일 예배 일정

2020년 12월 24일(목)

오전 9:00 ~ 10:30 - 성탄절 대시과

오후 5:00 ~ 7:30 - 9시과, 성탄대축일 대만과, 성 대 바실리오스 성찬예배

2020년 12월 25일(금)

오전 8:45 ~ 10:00 - 성탄대축일 조과

오전 10:00 ~ 11:30 -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스 성찬예배

2020년 12월 31일(목)

오후 5:00 ~ 6:00 - 축일 대만과

2021년 1월 1일(금)

오전 8:45 ~ 10:00 - 축일 조과

오전 10:00 ~ 12:00 - 성 대 바실리오스 성찬예배

2021년 1월 5일(화)

오전 9:00 ~ 10:30 - 신현축일 대시과

오후 5:00 ~ 7:30 - 신현축일 대만과, 성 대 바실리오스 성찬예배

2021년 1월 6일(수)

오전 8:45 ~ 10:00 - 신현축일 조과

오전 10:00 ~ 11:30 -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스 성찬예배

오전 11:30 ~ 12:15 - 신현축일 대성수식

(각 지역성당의 예배시간은 각 지역성당 사무실에 문의 바랍니다.)

주보소식

대교구

성탄절 준비 고백성사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주님의 이 큰 축일을 잘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는 고백성사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성당에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백성사를 원하는 신자께서는 각 성당의 신부님에게 연락하셔서 시간 약속을 잡으시고 고백성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주의와

온라인 성서공부 시청

최근에 코로나19가 더 크게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지침과 거리두기를 잘 지키면서 모두가

건강하게 이 위기를 하느님의 은총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합시다. 매일 밤 10시 기도예배에 참여합시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에 한국정교회 유튜브에 업로드 되는 성서공부를 시청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합시다.

인천 성 바울로 성당

신도총회 소집안내

오는 2021년 1월 10일 주일 성찬예배 직후에 제 37 회기 성 바울로 성당 신도총회가 개최됨을 공고합니다. 회의 안건은 1. 2020년도 사목 사업보고 및 회계결산. 2. 2021년도 사목사업계획 및 회계 예산. 3. 기타. 아울러 운영위원회 모임은 2021년 1월 3일 주일예배 후에 소집됩니다.